

한·양방 동시 협진으로 치료 효과 극대화

치료비용 감소·시간단축 효과 주목
자생한방, 2017년 한자리 진료 구축
한방재활과 재활과 영상의학과 협진
진료비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 필요

의료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 보니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과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잦다. 또한 치료를 받더라도 만족하지 못해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찾는 일도 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의와 양의라는 이원화된 의료시스템이어서 이런 현상이 심하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각기 다른 특징과 장점을 지닌 한·양방이 손을 잡고 환자 진료에 나선다면 효과는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정착시킨 ‘한자리 진료’는 한·양방 협력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공사례다.

●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우수사례

한방과 양방의 협진이 주는 장점은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료비용 감소와 치료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오래전부터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통한 비수술 한방 치료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그동안의 협진 노하우를 집약해 ‘의·사·한의사 한자리 진료’(약칭 한자리 진료)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다양한 분야, 기관과의 협진체계 구축은 해외 유명 의료기관들이 추구하는 최근 의료서비스의 흐름이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암센터인 미국의 엠디앤더슨 암센터(텍사스대 부설)와 다나 파버 암연



척추 환자를 대상으로 동시협진 ‘한자리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왼쪽)과 ‘한·양방 한자리 진료 시스템’.



자생한방병원 전경

구소(하버드 의대 부속병원),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MSK) 암센터 등은 의료 협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한자리 진료’는 한방재활과와 재활과, 영상의학과 등 한·양방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단과 치료의 과정이 분리된 기존의 협진 체계를 일원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자리에 모인 전문의들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환자 상황에 맞는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자생한방병원의 경우 먼저 엑스레이, 자기공명영상 등 영상장비로 환자의 척추와 관절 질환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장 주재 아래 4~5명의 한·양방 전문의들이 모여 병증을 진단하고 환자사와 소통하면서 맞는 치료법을 정한다. 다수의 의료진이 환자 한 명을 집중케어

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장점이다.

또한 환자의 편의성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의와 양의라는 이원화된 한국 의료시스템을 환자가 오가며 느끼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복 진료를 피할 수 있다. 그 외 전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치료법에 당황하는 환자의 고충도 해결하고 있다. 한의사와 의사들이 모여 상호보완적인 진료를 통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이다.

자생한방병원의 한자리 진료는 정부로부터 2019년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 동시협진 활성화, 진료비 제도 보완 필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한자리 진료에 대한 치료 만족도 및 선호도가 높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만 3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의사와 의사를 한자리에 만나는 협진시스템을 선호했다.

반면 한의와 양의 중 하나만 선택하는 비협진 진료 선호도는 220명으로 협진보다 절반 이하로 낮았다. 이 연구논문은 5월 SCIE(I)급 국제학술지 ‘Medicine (IF=1.552)’에 게재됐다.

연구를 진행한 척추관절연구소 이운재 한의사는 “연구를 통해 동시 협진에 대한 환자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동시 협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앞으로 진료비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운재 한의사의 지적처럼 환자 선호도와 장점을 감안할 때 동시협진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한의사와 의사가 동시 진료를 하더라도 1건만 인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생한방병원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척추·관절 환자를 위한 협진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 안주하지 않고 ‘한자리 진료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미래 플랜도 준비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고대안암병원, 의무기록 작성 음성인식 모델 개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음성인식 의무기록 작성(Voice EMR) 개발에 성공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퍼즐에이아이와 ‘Voice EMR 연구회’를 만들어 1년 동안 36만여 건의 의료 스크립트와 음성녹음 기록을 수집해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순환기내과, 치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외과 등 7개 진료과의 음성 인식모델을 개발했다. 과별로 최적화된 음성인식 모델을 적용했으며, 노이즈차단 기능을 새롭게 적용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진료현장에서의 인식률을 대폭 높였다.

서울대병원 이상연, LG화학 미래의학자상 수상



서울대병원 이상연 교수(사진)가 제13회 LG화학 미래의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모에는 96명이 지원해 5명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논문 수, 저널영향력 지수(IF)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상연 교수는 전문의 기간 중 다양한 분야에서 35편의 논문을 발표한 점이 높게 평가돼 선정됐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연 교수는 “상이 독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겠다”며 “유전성 난청의 진단 및 치료에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아성, 분당차병원 암환자 돕기 1000만원 기부



성광의료재단 분당차병원은 배우 고아성(사진)이 언니들과 함께 암환자 보호자를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아성은 분당차병원 사회사업팀을 방문해 기부 의사를 밝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의료 소모품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차병원은 ‘암환자 보호자의 숨 고르기 간병지원사업’을 만들어 기부금을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를 돌보는 저소득 가정의 간병비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 1668억 분기 최대 실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2분기 매출 4122억 원, 영업이익 1668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3공장 가동률의 상승과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1045억 원) 늘었고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3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익 본격화로 전년 동기 대비 105.7%(857억 원)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8월 세계 최대 생산능력의 4공장(25만6000L) 증설에 착수해 2022년 말 부분 가동, 2023년 풀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29일(목)		
서울	10/0	인천	10/0	춘천	30/0
	26		27		24
	35		32		36
강릉	20/0	대전	20/20	전주	20/20
	24		26		25
	33		34		33
광주	10/20	대구	20/20	부산	20/0
	24		24		25
	33		34		31
창원	20/0	제주	0/10	지역	강수 확률
	24		25		(오전/오후)
	32		32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3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발생 빈도 늘어난 갑상선 질환...조기 발견으로 건강 지켜야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갑상선은 후두부 밑에 위치한 나비모양의 기관으로 몸의 대사작용 및 호르몬 분비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최근 갑상선에서 악성종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갑상선암의 90% 이상이 상대적으로 진행속도가 느리고 치료경과도 좋은 편이라 일반적으로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조기검사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화 갑상선암도 크기가 증가되거나 위치가 좋지 않으면 림프절이나 주변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다. 1% 미만으로 드문 미분화암은 진단과 동시에 4기로 진단되고 평균 생존기간도 6개월 정도에 불과해 주의가 요구된다.

갑상선질환에는 갑상선암 외에 갑상선결절,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자가면역 갑상선염, 아급성 갑상선

염, 산후 갑상선염 등이 있다. 이중 약을 복용하여 호르몬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이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 피로, 두근거림, 체중감소, 체온상승 및 땀 많아지고 설사, 안구돌출, 생리불순 등의 증상이 생긴다. 반대로 적어지면 기력저하, 피로, 부종, 심 목소리, 체중증가, 변비, 생리불순, 추

위를 많이 타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갑상선질환은 혈액검사(갑상선기능검사, 갑상선자극항체검사), 영상검사(갑상선초음파) 및 세침흡입검사로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 세침흡입검사는 가느다란 주사바늘로 세포를 흡인한 후 양성결절인지 악성결절인지 감별하는 검사이다. 특별한 합병증 없이 빠른 시간에 시행되며 작은 암까지도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다.



라파엘병원 2내과 장주영 과장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29일 (목) 음력: 6월 20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사방이 위협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다. 황재수가 있다.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리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승진이나 집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장에 호소하여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관계 가지면 이롭다. 욕심이 많은 날이다. 금전적피해를 볼 수 있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오늘은 지상일이다. 풍연히 분주한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서두르면 낭패 본다. 기다려라.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가 올 때까지 힘을 길러라.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대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신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